

기독교와 문학:  
기독교 문학 연구방법론으로서 문학과 신학 통합연구

추태화 (안양대 기독교문화학과, 기학연 연구위원)

차 례:

- I. 들어가는 말
  - II. 기독교 문학: 정의와 역할
    - 1. 개념과 정의
    - 2. 역할론
  - III. 기독교 문학 연구방법론: 실례
    - 1. 문예신학
    - 2. 문학과 신학 통합연구
  - IV. 문학과 신학 통합연구의 확대
    - 1. 통합연구 방법론 형성
    - 2. 통합연구의 의미
  - V. 문학과 신학 통합연구: 체계와 교과과정
    - 1. 통합연구의 다양한 주제들
    - 2. 커리큘럼화 작업
  - VI. 맺는 말
- 참고문헌

## I. 들어가는 말<sup>1)</sup>

기독교와 문학에 관해 언급한다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나 문학이라는 두 개념은 각각 그 범위와 역사가 간단히 재단되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 이후 2천년의 역사를 갖고 있으며, 문학은 원시종합예술론으로부터 그 기원을 잡자면 역시 긴 역사를 내포하고 있다.

두 분야를 연관지어 연구하는 작업은 당연한 일이었으면서도, 일각에 남아있는 이원론적 분리 때문에 기독교와 문학이 소원한 관계에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다. 기독교의 근본주의적 입장과 문학의 세속성이 서로를 만나지 못하게 하였던 것이다.<sup>2)</sup> 그러나 기독교와 문학은 현재 학문적 연구의 한 분야로 당당히 자리잡고 있으며, 여러 다양한 연구방법론(methodology)이 전개되고 있다.

이 글은 기독교와 문학이 만나서 형성한 기독교문학이라는 분야를 어떻게 규정지으며, 나아가 어떻게 연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떠한 연구체계와 교과과정이 제시될 수 있는지, 한 연구 시안(試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2장에서는 기독교 문학의 정의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기독교 문학이 갖고 있는 기능에 관해 논해본다. 3장과 4장에서는 기독교 문학연구에서 자연스레 등장하는 문예신학과 문학과 신학 통합연구를 소개하고, 이 방법론에 관해 구체적으로 토의해 보고자 한다. 5장은 기독교 문학 연구의 총체적 과정으로서 문학과 신학 통합연구의 체계를 정립해 보며, 이 연구를 지속적으로 행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커리큘럼을 제안하고자 한다.

## II. 기독교 문학: 정의와 역할

### 1. 개념과 정의

그동안 기독교 문학을 정의하는데 어려움이 없지 않았다. 기독교 문학의 형식과 내용에 있어서 정확하게 규합되지 않는 면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만약 기독교 문학의 정의를 기독교에서부터 시작한다면 예술로서의 진정한 문학의 완성도를 거론하기 어렵게 된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강한 종교적 목적의식을 갖게 되므로 예술적 자율성보다 종교적 규범에 사로잡히게 되면 목적문학으로 빠지게 될 가능성이 많은 것이다. 따라서 기독교 문학은 문학에서 출발해야 한다. 기독교 문학은 문학으로서 기독교적인 진리를 표출하는 것이 되어야 진정한 예술로서의 가치를 가진다. 기독교 문학을 단순한 도식으로 규정하자면, 첫째 넓은 의미의 기독교 문학: 기독교권에 있는 작가들에 의해 형성된 작품, 둘째, 좁은 의미의 기독교 문학: 세례받은 작가(기독교적 영성)에 고백적인 내면에 의해 형성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기독교 문학은 어떻게 좀 더 구체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가? 조남기는 그의 저서 『기독교 문학산책』에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 "... 기독교 문학 하면 기독교의 구조 내지 내용, 가령 성서라든지 교회의 의식문제라든지, 교리, 신학, 그 사상 등을 소박하게 작품으로 승화시킨 문학작품을 기독교문학이라... 기독교의 모든 내용에서 기독교 소재를 가지고 건전하게 문학 예술로서 소박하게 승화시킨 것이 바로 기독교문학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라든지 자연과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 이런 삼각관계에서라든지 이 문제가 궁극적으로는 신앙에 의해서 승화되고 이해되고 나서 쓰여진 작품이라... 당초 인위적으로 기독교문학이 따로 있어서 쓰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이런 작품이 쓰여졌을 때 그 작품을 가르켜..."(조남기, 1991:223)

1) 이 글은 안양대학교 신학연구소가 펴낸 「신학연구」 제 5집 (1997 가을호)에 수록된 내용의 일부를 “기독교문학 연구”에 관한 심도있는 토의를 위해 수정 보완한 것이다.

2) 여기에 관해서는 교부 터툴리아누스의 명제가 좋은 실례가 된다. 그는 “예루살렘과 아테네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고 주장하면서 신앙과 세속성의 분리를 말했다.

독일 문예학자 K. 호호프의 정의도 귀담아 들을만하다. “... 문학에서 기독교적이라고 하는 것은 소재적이거나 주제적인 상태이지, 어떤 형식적인 원칙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교회의 전통에서 그 입장을 결정하기보다는 오히려 시민이며 기독교인인 개인들에 의해 결정된다... 기독교 문학은 비기독교 문학과 그 표현양식은 같지만 내용과 의미에서는 다르다. 그러므로 기독교가 원초적이고 예술과 문학의 영역을 훨씬 능가하고 있는 문화와 일치한다거나 혹은 대립된다는 얘기는 더 이상 생각할 필요가 없다... 기독교 문학의 의미는 요즈음에 듣는 바와 같이 저자가 기독교인이라는 전제 때문에 자동적으로 기독교 작가가 되어야 하는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기독교 문학의 의미는 오히려 예술가의 의지행위라 볼 수 있는 기독교적 세계조직에 대한 작가의 동감에서 야기된다.”<sup>3)</sup>(K.Hohoff, p.13)

## 2. 역할론

문학 예술은 원래 하나님의 은혜라는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문학의 전제조건이 되는 언어와 상상력은 하나님의 형상(Homo Imago Dei)대로 창조된 인간이 창조주로부터 부여받은 선물인 것이다. 곧 언어와 상상력은 하나님의 은혜이자 선물인 것이다. 기독교 문학은 신앙인들의 내면에서 형성된 영성을 기반으로 창조된 작품이기에 기독교 신앙을 복돋아 주는 훌륭한 기능을 가진다. 예를 들면 신학자 벌코프는 기독교 문학의 주요한 기능을 인정한다. 즉 문학도 ‘은혜’의 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말이다. 은혜를 입을 수 있는 매개체의 역할을 말한 것이다. “그러나 이 말씀은 다른 방법으로도 인간에게 전달될 수 있다. 가정에서나 학교에서 또는 대화나 문학을 수단으로 하여 소개될 수도 있는 것이다. 즉 성례는 교회에서 합법적인 교직자에 의해서만 집행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신자들에게 의하여 세계에 전달될 수 있으며, 또한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역사되는 것이다.”(Louis Berkhof, p.285)

C.S.루이스는 기독교 문학으로 속죄와 변증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다. “기독교 신자가 된 이후로 나는 믿지 않는 이웃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일은 모든 시대의 신자들이 공통적으로 믿어온 신앙을 설명하고 옹호하는 것뿐이라고 생각해 왔다.”(C.S.루이스, p.4)

독일의 기독교 작가들은 기독교 문학의 존재의의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영원한 질서를 계시하는 것”(W.베르겐그렌), “성경해석으로서의 문학”(J.클레퍼), “계시된 분에 대한 헌신”(R.쉬나이더), “문학의 예언자적 기능”(R.쉬뢰더), “영원한 것을 최후까지 유지하는 자”(E.비헤르트). (추태화, 1994b)

회심을 경험한 소설가 김승옥은 자신의 문학적 소명을 “하나님의 진리와 진실을 드러내기에 적절한 수단”이라고 밝힌다.<sup>4)</sup>

R.Lundin과 S.Gallergher는 기독교 문학을 접하므로 다음과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조언한다.(R.Lundin, S.Gallergher, pp.72-82) “하나님의 세계를 개발하라 (Developing God's World), 하나님의 세계를 즐기라 (Enjoying God's World),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라 (Loving Your Neighbors)”

## III. 기독교 문학 연구방법론: 실례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설쓰기의 문제는 해가 갈수록 더욱 새로운 필요성에 따르는 강한 욕구가 되어 나를 짓누르기 시작했다. 구원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만난 이상 소설쓰기가 더 이상 나의 구원수단은 아니게 됐지만 소설이라는 언어행위가 하나님의 진리와 진실을 드러내기에 적절한 수단일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게 된 것이다. 소설을 쓰기에 따라서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갚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마치 공산주의자들의 선전문학처럼 상투적인 기독교 전도용 소설로 단순화하는 것이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하나님의 진실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는 소설은 오히려 보다 철저한 독창성과 보다 생동적인 형상화를 이루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인간과 사회의 죄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접근과 관찰과 숨김이 없는 기록, 그리고 리얼리티를 오히려 돋우어주는 은유(隱喻) - 그것이 앞으로 내가 써야 할 소설이라는 비전이 날이 갈수록 뚜렷해지는 것이었다.” (「김승옥 소설전집 1」, p.6-7)

기독교 문학연구는 작품과 작가의 사상에 대한 기독교적 조망에서 멈추지 않고 그 연구방법론을 계속 전제해 나간다. 여기에 소개되는 문예신학과 문학과 신학 통합연구는 기독교와 문학이라는 거대한 분야가 어떻게 학문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실례라 여긴다.

## 1. 문예신학

신학과 문학은 논리적 사유와 창작의 주체로서 인간이 그 중심에 서있다. 그 주체가 본래적으로 함께 존재하는 공간이 종교이기에 두 학문을 거슬러 올라가면 종교라는 하나의 근원에 닿게 되는 것이다.

신학은 초월적 존재와 존재자에 관한 학문으로서 종교와의 연관성은 말할 것도 없지만(A.A.Hodge, 1995), 문학도 그 기원(起源)을 종교로 보는 관점이 있다. 원시종교에 봉사하였던 원시종합예술로부터 문학의 다양한 장르가 발전되어 나갔다는 학설이 그것이다.(문학개론편찬위원회편, 1986)<sup>5)</sup> 또한 문학연구 방법에서 ‘창작의 동기와 소재연구’의 결과를 보아도 종교의 다양한 내용이 문학 작품에 반영되는 것은 쉽게 발견할 수 있다.<sup>6)</sup> 각 민족의 근원설화 같은 장르가 종교적인 배경과 깊은 관계가 있으며, 세계문학에 손꼽히는 많은 작품들이 역시 종교와의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인정치 않을 수 없다.<sup>7)</sup>

종교라는 공동뿌리를 고려한다면 『문학과 신학 통합연구』는 끝내 학문적으로도 정립되어야 할 근거를 획득한다. 그러나 문학과 종교의 관계를 연구한 많은 학자들이 그 필요성을 감지하였으면서도 독자적인 학문방법론으로 정착시키지 못하였으며, 더구나 그 관계로부터 『문학과 신학 통합연구』라는 학문적 체계로 구체화시키지는 못하였다. 지금까지 시도된 문학에 대한 종교적인 접근으로서 “종교와 문학”<sup>8)</sup>, “기독교와 문학”<sup>9)</sup>, “성경과 문학”(N.Frye, 1993) 등과 같은 연관관계에서 연구되어 왔다. 역사적으로 보자면 문학이 인간의 감정과 상상력의 해방을 통하여 인류문화에 기여한 바를 부정할 수 없다. “총체적 인간의 파악”(김현, 김주연 편, 1995:29)이라는 문학 이념이 낳긴 정신적 문화유산은 개혁주의적인 시각에서 보자면 세속화(Secularization)를 가속시켰던 한 주요한 요인으로 평가되기도 하였다.

현재 문학과 종교의 관계를 연구해 온 방법론이 하나의 개념(Begriff)으로 정착되어가는 것에는 ‘문예신학’(Literatur-theologie)이라는 용어가 있다.<sup>10)</sup> 이는 문학에 대한 신학적 접근과 신학에 대한 문학

---

5) 여기서는 R.G.Moulton (The Modern Study of Literature)을 인용하여 문학의 기원을 원시종합예술로 인정하고 있다.

6) E.Frenzel의 두 권의 저서, 『Motive der Weltliteratur』(1980), 『Stoffe der Weltliteratur』(1981)는 이 방면에 관계된 자료들을 광범위하게 소개하고 있다.

7) R.W.호튼/V.F.호퍼, Background of European Literature, 고양성 역(1994) (춘천: 강원대출판부) 이 책은 서양문학의 근원으로 헬레니즘과 히브리즘을 양분하여 서술하고 있다. 이는 두 종교가 서양문학의 출발점이라는 이론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8) 종교가 문학에 끼친 영향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다음 책은 이 방면에 구체적이고도 광범위한 이해를 제공한다. G.B.Tennyson, E.E.Ericson, Jr.(ed.)(1975), Religion and Modern Literature. Essays in Theory and Criticism (Grand Rapids). “문학과 종교”라는 통합연구는 문학과 종교의 관계에 대한 연구 외에도 “기독교와 문학”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총칭하기도 한다. 『문학과 종교』라는 방법적인 개념은 이 분야의 연구에 있어서 상위개념이라 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현재 숭실대학교 김영철교수가 이끄는 『문학과 종교학회』가 있다.

9) “기독교와 문학”은 기독교계에서 문학에 대한 연구를 시도하려는 통합연구의 한 개념이기도 하다. 미국에서는 『Christianity and Literature』라는 범대학연구협회가 결성되어, 같은 제목으로 계간잡지를 출간하고 있다.

적 접근이라는 두가지 혼합된 연구방법론이다. 『문학과 신학 통합연구』가 학문적인 구조속에서 체계화 하도록 문을 연 분야들은 당연히 “종교와 문학”, “기독교와 문학”, “성경과 문학”이라는 연계성 속에서 확인되기는 하지만 이들은 어떤 구체적이고도 확실한 방법론을 형성하지는 못했다. 문예신학이라는 개념만이 그 가운데서 이론의 골격을 갖추어가는 방법론이다. 문예신학은 문학에 대한 신학적인 접근을 하게 하므로써 현대문화 속에서 문학 (문학은 곧 인간의 사상과 감정이라고 본다)이 끼치는 정신사적인 의미를 파악하게 한다. 그렇게 하므로써 문학의 고뇌 (즉 인간의 존재문제)를 신학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미래를 향한 사상적 대응을 마련해 보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문예신학은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겠다. “문예신학은 문학작품안에 내재되어 있는 요소들에 신학적인 접근을 가능케 하며, 사상들에 신학적인 비평의 칼을 대는 방법을 지칭한다. 이는 문학이 신, 인간, 세계를 향해 던지는 질문에 대하여 신학적으로 해답을 유도하는 상응적 방법(korrelative Methode)이다.”(추태화, 1994a:320)

## 2. 문학과 신학 통합연구

기독교와 문학의 연구방법론은 자연히 문학과 신학의 만남을 주선한다. 이는 문학과 신학의 만남이 공식적이고 통시적인 필연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말로 집약될 수 있겠다. 문학과 신학의 만남은 두가지 불가피한 접근양식을 보여준다.

첫째로, 문학과 신학은 기본적으로 종교라는 하나의 뿌리에 기초를 두고 있다.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한 몸의 두 얼굴 내지는 두 인격으로 보이는 것이 문학과 신학의 존재다. 이는 통합연구의 요청에 대한 공식적인 접근(Synchronic Approach)이라 하겠다.

둘째로, 문학과 신학의 해후는 시대적인 요청이라는 판단이다. 학문에 영향을 끼치는 시대적인 변화가 이미 무르익었다는 말이다. (아니면 늦은 일인지도 모른다) 시대적인 변화에 의하여 더 이상 유보되어져서는 안될 연구방법론이라는 생각이다. 통시적인 접근(Diachronic Approach)의 근거로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은 자세히 관찰하면 한가지 이유만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것이 많다. 예를 들면 ‘돌리’라는 유전자복제에 의해 탄생된 양을 놓고 볼 때 유전공학, 윤리학, 법의학, 환경문제 등 여러 분야의 조건을 고려하여 연구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으면 안된다. 한 주제가 품고 있는 복잡성은 통합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는 필연성을 말해주고 있다.

한 때는 학문이 세계를 움직이던 때가 있었다. 학문적 사유(思惟)와 이론이 실천의 동기가 되었다는 말이다. 현재 그런 이론을 고집하기에는 어딘가 시대에 걸맞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이론(Theory)과 실천(Practice)이란 주제가 철학의 고유영역으로서 사유가 모든 삶의 영역에 규범과 기준이 되는 이론을 확립하는 주체로서 역사의 중심에 자리하던 시대가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규범과 기준을 설정하는 기초로서 실천의 영역을 우선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윤리, 도덕과 같은 개념도, 과거에 통용되었던 공동선(公同善)과 같은 기준도 낡고 거치장스러운 의상으로 치부된다. 모든 기준설정 최전방에는 우선 ‘현장’이 위치한다. 자신의 독자적인 세계만을 고집해서는 융통성 있게 시대에 대처하며, 능동적

10) 이 개념은 독일의 학문계에서 먼저 사용되었는데, 이는 문예학(Literaturwissenschaft)과 신학의 역사-문화적 연관관계가 깊은 토양이 그 이유이다. 미국에서 ‘문예신학’이란 용어에 버금가는 말은 학술잡지 ‘문학과 신학’ 『Literature & Theology』이란 용어가 있긴 하지만 아직도 독일의 학문적 사유의 깊이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다음은 ‘문학과 신학’ 잡지의 편집목표이다. “Literature and Theology provides a forum discussion of interdisciplinary issues and approaches which are central to contemporary critical debate. It is neither a journal of theology nor a journal of literary studies, but works creatively between the two areas of academic interest. Previous issues have included articles on biblical criticism, the ethics of reading and postmodern perspectives on questions of politics and history.” 『Christianity and Literature』 (Carroliton/USA, 1996), Vol.46, p.4.

으로 변화를 주도해 나갈 수 없는 것이다. 이 원리는 학문에도 적용된다. 문학과 신학이 통합된 관점, 즉 신학과 문학이 이론과 실천의 역할을 서로 다하므로 변증법적인 토의를 계속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 IV. 문학과 신학 통합연구의 확대

### 1. 통합연구 방법론 형성

통합연구는 시대요구에 부응하는 학문방법의 한 개념이 되었다. '통합연구'와 '통합'이라는 개념은 이미 여러 분야에서 적용되고 있던 원리이다. 예를 들면 산학협동이라는 말이나 경영분야의 '통폐합'이라는 말은 대학이나 기업의 서바이벌 요소가 되고 있다. 다각적인 변화와 세계적인 경쟁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소위 기업통폐합(M & A)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통합'은 아카데미 영역 외부에서 더 활발하게 적용되어 왔던 것으로 보인다. 이 원리는 대학에서도 세차게 불고있다. 학부제 신설과 함께 학부 안에 유사한 과(科) 및 과목들이 폐지되고 새롭게 자리매김하므로 정착되는 소위 학과 및 과목 통폐합이 추진되고 있다. 이것은 학문의 고유한 영역을 무시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증척되는 부분을 새로운 연구체계에 편입시키므로서 연구결과의 다양성을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문학과 신학 통합연구』 개념은 전혀 새로운 연구방법이 아니다. 이 연구방법론은 언급한대로 “종교와 문학”, “기독교와 문학”, “성경과 문학” 및 “문예신학”이라는 분야에서 적용되었던 선례를 보이고 있다. 『문학과 신학 통합연구』는 위의 연구방법들을 보다 구체화시키고 체계화하려 한다. 이 연구방법은 학문의 독자적인 세계구축에서 오는 편협성과 이기주의를 극복하며, 학문간의 자유로운 조화와 대화를 유도하려는 목적으로 시도되어야 한다. 이 관계는 종래에 소위 Integration, Integrative Study, Relationship, Multidisciplinary, Interdisciplinary Study 등으로 지칭되어 왔는데, 우리는 학문적인 체계와 방법을 고려하여 『Interdisciplinary Study』라는 용어를 선택하기로 한다. 문학과 관련, 기존의 통합연구방법론이 적용된 예를 들자면 “문학과 철학”, “문학과 의학”, “문학과 법학”, “문학과 사회학”, “문학과 미술, 음악” 등과 같은 제목으로 행해졌다.<sup>11)</sup> 이러한 맥락에서 보자면 “문학과 종교”라는 연구는 어느 분야보다도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다. “문학과 신학”은 문학과 종교의 광범위한 대화를 일차적으로는 기독교 부문으로 압축하여 그 연구를 시도하며, 나아가서는 다른 종교와 대화하여 그들로 하여금 복음에 관한 관심을 유도하도록 한다. 현대는 종교다원주의 시대이다. 종교의 고유한 교리는 상대주의로 비쳐져서 여러 다양한 종교 중의 하나라는 인식이 유행하고 있다. 이러한 사상은 특히 기독교의 정체성에 도전하고 있다. 기독교가 선포하는 유일신 사상, 우주적 그리스도, 예수의 유일한 구원역사 등이 직접, 간접으로 부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문학과 신학 통합연구』는 이러한 시대의 조류에서 학문적인 토론과 연구를 통하여 각 분야에서 해결치 못한 부분들을 검증하고 기독교학문으로서의 자리매김을 시도하려 한다.

### 2. 통합연구의 의미

11) 이 방면에는 다음 책이 통합연구방법론을 교과서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J.Thorpe(ed.)(1967), Relations of Literary Study: Essays on Interdisciplinary Contributions (NY). 안경환(1995), 『법학과 문학 사이』(서울: 까치)라는 저서를 낸 안경환 교수도 “interdisciplinary”라는 개념을 사용하면서, 학문의 통합적 발전에 기여하는 연구방법이라는 점을 지지하고 있다.

위에서 우리는 문학이 신학적이며 신앙적인 대화를 이끌어내는데 상당한 기여를 한다고 말했다. 문학은 인간학적 연구(Anthropological Study)를 가능케 하는 또 하나의 주요한 텍스트를 제공한다. 문학을 통해 드러난 인간, 인간의 사상, 인간의 실존, 인간의 역사를 이해하게 하므로써, 문학은 '문학'에 머물지 않고 신학의 주제와 만나게 된다. 이런 점에서 가톨릭 신학자 라너(Karl Rahner)가 말한 '신학은 인간학이다' (Theologie ist Anthropologie)란 고백은 문학과 신학의 만남에 대한 하나의 근거가 된다. (H.Schröer, 1989:66)

기독교적 통합연구는 의도와는 상관없이 일방적이라는 오해를 종종 낳게 한다. 학문의 객관성의 이름으로 특정종교를 강요하지 말 것을 요구하거나 종교의 개입이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하는 학문의 현실태에서 『문학과 신학 통합연구』는 시대에 걸맞는 토론과 대화, 연구논리를 획득케 하리라 본다. 우선 문학이라는 텍스트의 장(場)이 선입견을 없애주기 때문이다.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말 외에도 현대를 지칭하는 표현으로는 우주시대, 전자시대, 제 3의 물결의 시대, 정보화 시대라는 개념이 사용된다. 이 용어들의 이면을 살펴보면 하나의 공통된 사실이 있다. 그것은 이 용어들이 모두 기존 가치관의 변이현상을 몰고 왔다는 것이다. 이 시대는 앞으로의 시대를 이끌어 나갈 학생들의 가치관을 사실상 흔들고 있다. 이러한 때 문학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역설한 사람이 있다. 미국의 문예비평가 블룸(H.Bloom) 교수이다. 그는 자신의 저서 「서양의 正典」 (The Western Canon)에서 고전으로 돌아갈 것을 주장했다. 그의 대학 강단경험은 “나는 요즘 같은 세상에서 문학교육이 살아남을 수 있을지를 장담하지 못한다”고 고백해 했던 것이다.<sup>12)</sup> 『문학과 신학 통합연구』는 기독교의 고전적인 주제들을 다시 대학으로, 사회로, 그 구성원들에게로 향하게 할 것이다. 신에 관하여, 인간에 관하여, 삶과 죽음에 관하여, 구원에 관하여,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사회윤리에 관하여, 건전한 시민철학 등등에 관하여 문학과 기독교가 만나는 대화를 가능한 범위에서 개진하게 할 것이다.

또한 통합연구를 통하여 학생들이 참다운 가치관 형성하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서 대학이 사회 구성원들에게 생의 실제적 주제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문학연구가 대학 안에서만 존재하는 것은 학문의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 없다고 본다. 학문이 인간을 위해 존재하듯이 대학 내의 문학연구도 대학이 존재하는 사회와 그 구성원들의 정신적 토대를 형성하기 위한 내용을 제공해야 한다. 학생들의 논술연습을 위한 텍스트 정도로 문학 강좌가 다루어져서는 안 된다. 문학연구는 인간의 정신문화를 이루는 기본이므로 인간의 삶에 다시 환원되어야 한다. 대학교육이 지향하는 목표가 “지성, 덕성, 리더십 함양”을 위한 전인교육이어야 한다면 『문학과 신학 통합연구』를 실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와같은 요소들이 습득되리라 본다.

『문학과 신학 통합연구』는 문학과 신학이 그동안 천착하여 왔던 문제들에 대하여 또다른 각도에서 접근하게 한다. 문학과 신학은 인간과 세계의 존재에 관하여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져왔다. 즉 인간이 왜 사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진정한 가치는 무엇인가? 신의 존재를 문학이 어떻게 표현하였는가? 방황하는 현대인들에게 무엇을 말해줄 수 있는가? 고난이란 무엇인가? 악은 무엇인가? 신은 악을 왜 허용하였는가? 세계의 역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등등이 그것이다. 문학과 신학 통합연구는 이러한 질문을 계속 파고들도록 그 연구의 주제를 확대하고 체계적인 이론을 형성하여 『기독교세계관과 학문』에 요구되는 사유와 인식론에 접근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문학과 신학 통합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이 압축될 수 있겠다.

- ① 문학과 신학의 학문적 대화유도
- ② 문학의 해석학적 문제를 신학에서 유도

---

12) 이 점에 대해서는 「대학교양교육」(1995), “지성, 덕성 및 리더십 함양과 관련된 고전의 올바른 이해” (p.65 이상)편을 참조.

- ③ 신학의 인식론적 한계를 문학에서 보완
- ④ 기독교 문학을 소개, 계발, 확장, 육성
- ⑤ 문서선교적 차원에서 기여
  - 기독교 신앙을 문학을 통하여 변증 (Apology)
  - 문학텍스트를 기독교교육에 응용 (Christian Education)
  - 문학을 심리치유에 응용 (Christian Counseling)
  - 심리 재활에 활용 (Literary Psychorehabilitation)
- ⑥ 여러 종교문학을 연구하여 종교간의 대화 유도 (Ecumenical Dialogue)

## V. 『문학과 신학 통합연구』 체계와 교과과정

기독교와 문학의 만남에서 도출된 『문학과 신학 통합연구』는 기독교교양교육에서 기독교학문으로 향해가는 하나의 징검다리라 할 수 있다. 여기서는 문학 연구에 국한된 기독교 문학연구가 아니라 기독교교양교육까지 확대하는 의미에서 『문학과 신학 통합연구』의 체계를 설정해 보고자 한다.

- ① 우선은 통합연구의 기본은 '기초이론 연구분야'가 된다. 문학분야에서는 문학연구의 기초과정을, 신학분야에서는 신학연구의 기초과정을 다룬다. 이는 대학교양과정에서 시행되어야 할 분야이다. 이 분야는 주로 교양필수 내지는 교양선택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 ② 다음으로는 '응용이론 연구분야'로서 기초이론으로 형성된 주제와 확실한 방법론을 심도있게 적용해 보는 소위 '전공심층연구과정'인 것이다.

### 1. 통합연구의 다양한 주제들

『문학과 신학 통합연구』를 다시 세분화하여 분류한다면 크게 네가지 분야로 나눌 수 있겠다. 제 1부분은 기초작업으로서 문학과 신학의 만남을 준비하는 영역이다. 이는 원론을 세워나가기 위한 분야이다. 제 2부분은 본격이론 연구분야로서 통합연구의 중심연구분야이다. 제 3부분은 보완이론 연구분야로서 통합연구를 보다 더 심도있게 연구하도록 지원하게 되는 이론개발분야이며, 제 4부분은 응용이론 연구분야로서 연구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얻어진 다양한 주제들을 구체화시키는 작업이다.

#### 1) 제1 부분: 원론형성을 위한 기초연구

- ① 『문학과 신학 통합연구』를 위한 연구문헌집  
(Bibliography for interdisciplinary Study on Literature and Theology)
- ② 기독교 작가사전 (Lexicon of Christian Writers)
- ③ 기독교 문학사전 (Lexicon of Christian Literature)
- ④ 기독교 문예비평 용어사전 (Lexicon of Christian Literary Criticism)
- ⑤ 신학용어사전 (Lexicon of Theological Terms)

#### 2) 제2 부분: 본격이론 연구

- ① 문학과 신학, 그 만남의 이론과 적용 (Literature and Theology):

interdisciplinary Studymodel in Theory and Practice)

- ② 성경과 문학 (Bible and Literature I)
- ③ 성경과 문학 (Bible and Literature II)
- ④ 문학 속의 성서 (Bible in the Literature)
- ⑤ 문학 속의 신학: 문학과 조직신학 (Theology in the Literature: Literature and Systematic Theology)
- ⑥ 문예신학 (Literature-theology)
- ⑦ 영성과 문예비평: 성경적 문학이해를 위한 시론 (Spirituality and Literary Criticism: An Experiment of biblical Understanding and Christian Literature-criticism)
- ⑧ 문예이론과 성경해석 (Literaturetheory and Biblical Interpretation)

### 3) 제3 부문: 보완이론 연구

- ① 신학자들의 문예이론 (Literaturetheory of Theologians)
- ② 문학과 예술의 신학적 이해 (Theory of Literature and Arts in theological Perspective)

### 4) 제4 부문: 응용이론 연구

- ① 문학과 세속화 (Literature and Secularization)
- ② 문학과 카운셀링 (Literature and Christian Counseling)
- ③ 철학자들의 종교비판 (Religionscriticism of Philosophers)
- ④ 기독교 철학과 세계관 (Christian Philosophy and World View)
- ⑤ 기독교 입장에서 본 문예사조사 (Literary Trends in the Christian World View)

## 2. 커리큘럼화 작업

그동안 “문학과 신학” 통합연구는 문학도 아니고 신학도 아닌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독일의 예에서 보더라도 학자나 연구자들은 문학 아니면 신학 전공자들로 이분화되어 있었다. 실제로 이러한 통합연구를 집중적으로 다룰 수 있는 고유한 과는 존재하지 않았다. 교수의 학풍과 연구성향에 따라 관심있는 학생들이 모여들 뿐, 그들을 한 과(科)의 차원에서 지원하고 연구하게 하는 체계는 아직 성립되지 못했다. 독일 튀빙겐 대학교 신학부에 소속되어 있는 에큐메니칼운동 연구소 (Institut für ökumenische Forschung)가 종교간의 대화를 “문예신학”이라는 연구방법으로 실현해 보려고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다.<sup>13)</sup>

이 연구는 서구에서 뿐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아직 미개척 분야에 속한다. 어문학계열이나 신학과에서 이 통합연구를 시도할만한 전체적인 연구이론이 세워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소위

---

13) 이 분야의 논의를 현재까지 가장 활발하게 진전시키고 있는 기관은 독일 튀빙겐(Tübingen)대학교의 『Tübinger Theologie-Literatur-Symposium』 (튀빙겐 신학-문학 심포지움)일 것이다. 신학분과에서는 H.Küng교수, K-J.Kuschel교수, 문학분과에서는 W.Jens교수가 주축이 되어 있다.

『문학과 신학 통합연구학과』를 신설할 수도 없는 일로 보인다. 『문학과 신학 통합연구』라는 분야가 하나의 독립된 학문으로 자리잡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현행 구조로 보자면 『기독교학과』가 기독교와 관련된 연구과제를 융통성 있게 학생들에게 지도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문학과 신학 통합연구』를 집중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대학의 편제 구조상 『기독교학과』가 가장 적합하리라 생각되며, 그렇지 않다면 『신학과』 또는 『교양학부』에서 담당하여 연구, 지도될 수 있겠다.

다음으로 『문학과 신학 통합연구』를 지속적으로 연구, 지도할 수 있기 위하여 기존의 대학 편제와 구조를 기준으로 교과과정을 제안해 본다. 일반대학들은 교양과정을 세부적으로 나누어 실행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① 교양필수로서 공통필수, ② 교양선택(타계열 또는 대학별 선택), ③ 자유선택으로 대별되어 있다. 본 연구는 『문학과 신학 통합연구』를 한 과단위로 묶어질 수 있는 연구분야로 생각하여 세 분야(교양필수, 교양선택, 전공심층연구과정)로 분류해 보고자 한다.

### 1) 교양필수

이는 1, 2학년까지 개설되는 교양필수 시간에 수강이 기대되는 과목이다. 여기에서 『문학과 신학』 통합연구를 시작하기에 기초가 되는 주제, 논리적 도구, 인식론적인 훈련을 익히게 된다.

- ① 문학과 종교 Literature and Religion
- ② 성경과 문학 (1) Bible and Literature (1)
- ③ 성경과 문학 (2) Bible and Literature (2)
- ④ 기독교 문학론 (1. 성경적 원론) Theory of Christian Literature (1)
- ⑤ 기독교 문학 장르론 Genre-Theory of Christian Literature
- ⑥ 기독교 문예비평 용어연습 Critical Terms of Christian Literature

### 과목 해설

#### ① 문학과 종교 (Literature and Religion)

문학과 종교는 깊은 연관 관계를 가지고 있다. 문학과 신학이라는 연구분야에 접근하기 전에 문학과 종교라는 분야를 공부하므로써 문학의 출발로서의 종교를 객관적으로 체험하게 된다. 문학의 주제로서의 종교, 문학양식 발전의 모태가 되는 종교, 종교심리학, 종교사회학 등을 알므로써 문학 속에 나타난 종교현상에 이해를 돕게 한다.(H. Gardner, 1983; G.Gunn, 1971; D.H.Hesla, 1978:181-192)

#### ② 성경과 문학 (1) (Bible and Literature I)

하나님의 영감으로 지어진 성경의 저자는 다양한 인물들이다. 하나님은 그들의 역사, 문화, 언어를 사용하여 자신을 계시하셨다. 성경은 외형적으로 문학의 형태를 띄고 있다. 즉 성경은 창작은 아니지만 문학형식(역사서, 시가서, 서간체 등)을 갖추고 있다. 또한 상징, 은유, 직유, 비유 등 다양한 문체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요소들을 연구하여 성경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성경원어 훈련을 권장한다.(B.B.Trawick, 1970; J.B.Gabel and Ch.B.Wheeler, 1990; 김지찬, 1995)

### ③ 성경과 문학 (2) (Bible and Literature II)

『성경과 문학』(1)이 성경의 문학적 구조에 관한 연구라면 본 강의는 성경과 문학의 대화(Dialog)라고 말할 수 있다. 성경은 인류의 구원에 관한 책으로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 문학이 인간의 삶에 대한 질문으로 본다면 성경은 어떻게 대답하고 있는가를 실제 작품과 성경을 대비하여 연구한다. 방법론은 티리히 (P.Tillich)의 '상응관계' (Correlation)를 참조.

### ④ 기독교 문학론 (1) (Theory of Christian Literature I)

성경이 과학에 관한 서적이 아니므로 성경에서 과학이론을 발견하려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 것이다. 마찬가지로 성경은 문학에 관한 서적이 아니므로 문학이론을 찾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성경을 통하여 창조과학의 원리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성경 속에서 문학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다.(L.Ryken, 1979, 1985; G.E.Veith, 1951)

### ⑤ 기독교 문학 장르론 (Genre-Theory of Christian Literature)

문학의 양식 중에서 기독교 신앙, 역사와 관계하여 발달된 부분들이 있다. 때로는 어떤 특정한 시대에 특정한 기독교 문학 장르가 개발된 경우들이 있었다. 예를 들면 자기참회의 형식인 고백록(아우구스티누스, 파스칼 등), 예수교단이 반동종교개혁시대에 유행시킨 종교연극, 잠언과 전도서의 영향을 받은 경구(Aphorism) 형식 등에 대한 내용을 공부한다.

### ⑥ 기독교 문예비평 용어연습 (Critical Terms of Christian Literature)

일반문예비평 용어사전은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책들이다. 기독교문예비평 용어연습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 문학, 또는 문화적인 의미로 정착된 내용들을 공부하므로써 기독교적인 기본인식론과 비판능력을 배양한다. 예를들면 종교개혁시대의 예술, 개혁주의 문화관, 경건주의 (Pietism) 등이다.

## 2) 교양선택

### ① 기독교 문학론 (2) Theory of Christian Literature II

②-1) 한국 기독교문학사 History of Korean Christian Literature

②-2) 영미 기독교문학사 History of Anglo-American Christian Literature

②-3) 독일 기독교문학사 History of German Christian Literature

②-4) 불란서 기독교문학사 History of French Christian Literature

②-5) 러시아 기독교문학사 History of Russian Christian Literature

③ 작가론 연구 Study on Christian Writers

④ 작품론 연구 Study on Christian Works

⑤ 기독교 문예비평 Christian Literature-Critic

⑥ 기독교 문학과 시대문제 Christian Literature and Contemporary Problems

⑦ 기독교 문학과 세계관연구 Christian Literature and Study of World View

① 기독교 문학론 (2) (Theory of Christian Literature II)

위에서 언급한 기독교 문학론(1)이 성경을 토대로 원론적으로 형성된 것이라면 이 과목은 작가들의 사상을 중심으로 재편성된 기독교 문학론이다. 기독교 문학론은 작가의 사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또 성경과 기독교에 대한 작가의 태도에 따라 그 이론에도 차이가 있으므로 이런 연구는 반드시 검증작업이 필요하다고 본다.(T.S.Eliot, 1936)

②-1) 한국 기독교문학사 (History of Korean Christian Literature)

한국 문학사에서 보이는 기독교와 문학의 관계, 기독교작가들과 또는 기독교적 성향을 보이는 작가 및 비기독교인이지만 기독교적인 주제를 다룬 작가들의 작품을 연구한다. 기존의 한국문학사를 기초로 하여 이광수, 전영택, 윤동주, 김현승, 황금찬, 현길언, 정연희 등 작가들을 거론한다.(가진오, 1995; 소재영 외, 1993; 김희보, 1979)

②-2) 영미 기독교문학사 (History of Anglo-American Christian Literature)

영미 문학사에서 보이는 기독교와 문학의 관계, 기독교작가들과 또는 기독교적 성향을 보이는 작가 및 비기독교인이지만 기독교적인 주제를 다룬 작가들의 작품을 연구한다. Chaucer, Bunyan, Milton, W.Blake, J.H.Newman, G.Chesterton, T.S.Eliot, C.S.Lewis, G.Greene 등등.(A.Avni, 1970:101-106; E.Jennings, 1992; 조신권, 1987)

②-3) 독일 기독교문학사 (History of German Christian Literature)

독일 문학사에서 보이는 기독교와 문학의 관계, 기독교작가들과 또는 기독교적 성향을 보이는 작가 및 비기독교인이지만 기독교적인 주제를 다룬 작가들의 작품을 연구한다. Meister Eckart, Th.Murner, M.Luther, J.Spener, A.H.Francke, M.Claudius, Lavater, C.Brentano, J.Gothelf, R.Huch, G.von Le Fort, R.A.Schröder, E.Wiechert, W.Bergengruen, R.Schneider, J.Klepper, H.Böll 등등.(M.J.Fiecke,1944; H.Friedmann u. O.Mann (hrsg), 1968; Tea-Wha Chu, 1994)

②-4) 불란서 기독교문학사 (History of French Christian Literature)

불란서 문학사에서 보이는 기독교와 문학의 관계, 기독교작가들과 또는 기독교적 성향을 보이는 작가 및 비기독교인이지만 기독교적인 주제를 다룬 작가들의 작품을 연구한다. L.Bloy, P.Claudiel, C.Peguy, J.Maritain, G.Mercel, G.Bernanos, S.Weil 등등.(K.H.Bloching, 1966; R.D.Reck)

②-5) 러시아 기독교문학사 (History of Russian Christian Literature)

러시아 문학사에서 보이는 기독교와 문학의 관계, 기독교작가들과 또는 기독교적 성향을 보이는 작가 및 비기독교인이지만 기독교적인 주제를 다룬 작가들의 작품을 연구한다. Tolstoi, Dostojewski, Berdjajew 등등.

③ 작가론 연구 (Study on Christian Writers)

②분야에서 언급된 구체적인 작가들의 생애와 사상을 연구한다.

④ 작품론 연구 (Study on Christian Works)

②분야에서 언급된 구체적인 기독교 문학작품을 연구한다.

⑤ 기독교 문예비평 (Christian Literature-Criticism)

기독교적인 시안과 대안을 가지고 어떻게 문예비평을 할 수 있는가 이론적 작업과 실기를 병행해 본다.

⑥ 기독교 문학과 시대문제 (Christian Literature and Contemporary Problems)

문학 속에 비친 시대현상들. 요즘 시대를 예로 든다면, 여성문제, 노동자 문제, 빈부의 격차, 소외문제, 환경파괴, 핵위협, 자연보호, 미래문제 등에 대한 대안제시를 기독교 문학으로 찾아본다.(가브리엘 바하니안; R.Brett, 1953:92-99; H.Harmsel, 1973:8-14)

⑦ 기독교 문학과 세계관연구 (Christian Literature and Study of World View)

문학 텍스트에는 한 시대를 살아가는 작가의 이성적 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기독교 문학 작품 속에 나타난 사상을 연구하므로써 역사와 시대를 대치해 나가는 논리를 배우게 되고, 또한 비기독교적인 사상과 문화에 대하여 세계관적인 대화를 이루도록 한다.(A.Becker, 1966; E.Diller, 1967:363-371)

### 3) 전공심층연구과정

이는 기독교학과나 신학과 같은 곳에서 3, 4학년 때부터 전공분야를 더 심도있게 공부하기 위하여 개설할 수 있는 과목이다. 또는 대학원 과정을 위하여 개설할 수도 있겠다.

- ① 문예이론과 성경해석      Literaturetheory and Biblical Hermeneutics
- ② 문학과 조직신학          Literature and Systematic Theology
- ③ 문학과 기독교론          Christology in the Literature
- ④ 문학과 구원론              Soteriology in the Literature
- ⑤ 문학과 인간론              Anthropology in the Literature
- ⑥ 문학과 실천신학          Literature and Practical Theology
- ⑦ 문예신학                    Literature-theology
- ⑧ 문학과 세속화              Literature and Secularization
- ⑨ 문학과 카운셀링          Literature and Christian Counseling
- ⑩ 기독교문학과 기독교철학      Christian Literature and Christian Philosophy

### 과목 해설

① 문예이론과 성경해석 (Literaturetheory and Biblical Hermeneutics)

성경과 문학은 공히 문자로 기록되어 있다. 즉 텍스트로서 연구자에게 다가온다는 것이다. 문학 텍스트 이해(Understanding)와 해석(Interpretation)에 사용되어 왔던 여러 방법론을 성경에 응용해 보므로써 성경 텍스트 이해를 더 깊게 연구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적용될 수 있겠다: 정신사적 측면, 문학심리학, 문학사회학, 유물사관에서의 문학적해, 실증주의, 구조주의, 여성주의 관점 등.(J.Strelka, 1978:201-330; T.Longmann, 1987)

② 문학과 조직신학 (Literature and Systematic Theology)

문학은 인간의 모든 체험을 담고 있는 언어예술이므로, 신학이나 철학적인 내용도 문학 형식과 언어 속에 용해되어 있다. 문학은 신존재, 인간 실존, 구원, 탄생과 죽음, 삶 등과 같은 문제를 다루므로 여기에서 신학적인 논리를 이끌어 낼 수 있다. 문학에서의 신학적 내용을 도출하므로서 진정한 신학함에 대한 자극과 새로운 해석 가능성을 제시한다.(D.Daiches, 1984; R.Stewart, 1958; F.Eversole, 1949)

③ 문학과 기독교론 (Christology in the Literature)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음으로서 예수의 존재를 정확히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시사하였다. 그런데 그 대답은 시대와 사상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 경우도 있었다. 문학에서 예수 이해가 어떻게 다양하게 묘사되었는지 연구함으로써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와 세속에서 이해된 예수가 얼마나 다른지, 왜 그런 이해를 하게 되었는지 연구하므로서 바른 기독교론으로 회복할 방법을 찾는다.(K-J.Kuschel, 1987; A.Luther, 1968; Th.Ziolkowski, 1972)

④ 문학과 구원론 (Soteriology in the Literature)

문학을 하나의 예술행위로서 종종 자기구원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었다. 문학이 종교를 그 내용으로 삼는 경우도 있지만, 문학에서 종교적인 구원을 발견하는 듯한 경우도 있어왔다. 현대와 같은 종교다원주의 시대에는 문학을 종교의 차원으로 보는 경우도 더 많이 대두되었다. 문학이 사이비종교의 역할을 하는 경우도 많이 생겼고, 문학에서 현대판 구원이라는 것을 선포하려는 작가들도 있다. 과연 진정한 구원은 무엇인가를 이 연구를 통하여 개진해 본다.(C.Kilby, 1978)

⑤ 문학과 인간론 (Anthropology in the Literature)

문학의 주제는 언제나 인간이다. 각기 다른 시대, 각기 다른 문화권 속의 문학은 서로 다른 인간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다양한 문학 속에 등장하는 인간을 연구하므로서 인간은 과연 어떤 존재인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인간의 미래는 어떻게 다가올 것인가 하는 문제들을 연구해 본다.(H.Thielicke, 1981; R.Guardini, 1962)

⑥ 문학과 실천신학 (Literature and Practical Theology)

본 강좌는 실천신학에 기여할 수 있는 문학의 효용성을 연구한다. 예를 들면 연극을 통하여 예배에 기여할 수 있고 (예배학), 기독교 문학 작품을 전도에 이용할 수도 있다 (전도학). 또한 현대인의 심리-정신상태를 문학을 통하여 파악하고 그 치유의 방법도 고안 할 수 있다 (치유학). 또한 신앙사와 문학 작품을 창작하고 토론하므로서 신앙과 묵상, Q.T. 등을 다양한 각도에서 시도할 수 있는데 이는 평신도 교육 프로그램이나 주일학교에 응용할 수 있겠다 (영성학, 교육 프로그램).(R.P.Crimman, 1978)

⑦ 문예신학 (Literature-theology)

문예신학은 문학과 신학의 통합연구분야를 개척한 선구자적인 이론이다. 이 이론은 아직 확실히 정립되어 있지 못하지만 두가지 접근 방법이 가능하다. 하나는 신학 쪽에서의 접근이고, 다른 하나는 문학 쪽에서의 접근이다. 현재까지 수립된 이론은 신학자들의 시도로 이루어진 것이 대부분이다. 이 연구를 통하여 문학과 신학의 통합연구를 시도할 수 있고, 나아가서는 해석학, 문예비평, 세계관 연구 등으로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W.Jens, H.Küng und K-J.Kuschel, 1986; H-E.Bahr”, 1961; U.Baltz, 1981; A.Winklhofer, 1960)

#### ⑧ 문학과 세속화 (Literature and Secularization)

인류문화사를 돌이켜 보면 문화의 흐름은 세속화의 길을 걷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세속으로의 과정에 한 몫 한 것이 바로 문학이다. 문학이 인간의 자유와 해방을 목표로 추구한 그 이면에는 신앙을 상대화 시키고, 성서적 삶에서 유리하도록 하는 결과도 낳았다. 이 과목에서 다루어질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연숭배 사상 (Nature), 절대 자아의 해방 (Autonomy), 예술 지상주의, 자연주의적 숙명관, 실존주의, 동양적 운명관, 종교혼합주의, 성해방 등.<sup>14)</sup>

#### ⑨ 문학과 카운셀링 (Literature and Christian Counseling)

문학은 독자에게 예술적 감흥과 감동을 전달한다. 독자는 문학 텍스트를 통하여 자신을 관찰할 수 있다. 독자들은 문학이 제공하는 상황을 체험함으로써 자신의 문제를 객관화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대화에 궁핍함을 느끼는 현대인의 여러 문제, 소외감, 스트레스, 고독, 우울증, 약물 중독현상, 열등감 등의 주제를 문학텍스트를 경험함으로써 치유케 하는 방법을 시도해 본다.

#### ⑩ 기독교문학과 기독교철학 (Christian Literature and Christian Philosophy)

기독교철학에 관하여 많은 논란이 있어 왔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기독교철학이 과연 존재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철학의 기초는 의심이라면 신앙의 기초는 신뢰이다. 두 기초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메꿀 것인가. 즉 의심과 신뢰로 대변되는 인식론이 과연 가능한가 하는 것이다. 기독교철학이 내세우는 제문제를 문학텍스트를 사용하여 해결해 본다.(Ch.R.Courtney, 1955; H.Jones, 1891; S.Bein, 1973:278-285)

## VI. 맺는 말

기독교 문학 연구는 다원화된 시대에 문학 분야에만 안주할 것을 거부한다. 기독교와 문학 각각의 분야가 원래적인 의미에서 인간 존재와 상황에 밀접한 연관 문제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이 분야의 연구는 보다 심도있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정보화로 인하여 점점 더 사회구성원의 인지도가 계발되어 가는 현대사회에서, 그것도 기성종교가 그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는 현실에서, '종교'가 다시 급부상하고 있는 것은 의아스런 일이다. 종교적 관심과 초월적 현상에 대한 흥미가 고조되고 있다는 말이다. 이러한 현상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부정적인 요소를 더 많이 포함하고 있다. 이성이 불려온 과학문명이 현대인에게 오히려 정신의 공허감(Spiritual Vacuum)을 선사한 것이다. 물론 이런 결과는 문학과 신학/기독교 두 학문에게도 반가운 일은 아닌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의 상황'(Conditio Humana)이 그만큼 악화되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문학과 신학의 주제가 공히 '인간'이기에 『문학과 신학 통합연구』는 '종교적'으로 탈바꿈해 가는 탈전통시대에 필요한 대화를 이끌어 내야한다. 권위, 강요, 압력에 의해 설득당하는 시대는 지나간 것이다.

『문학과 신학 통합연구』는 문학의 '문학함'이나 신학의 '신학함'을 객관적인 논리로서 만나게 하려

---

14) 독일 가톨릭 신학자이며 뮌헨대학교 『기독교세계관학과』 교수였던 R.Guardini (1885-1968)는 독일작가 뢰들린, 릴케의 작품론을 썼다. 구아르디니를 움직였던 집필동기는 문학작품이 젊은층의 가치관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우려에 기인하고 있었다. 또한 F.셰퍼의 글이 이 방향의 연구 길잡이가 될 것이다.

한다. 그럼에도 이 연구방법론의 궁극적인 목표는 기독교 지성의 사유와 사상의 확립이다. 그러기 위하여 『문학과 신학 통합연구』는 기존에 실행되었던 연구분야, “종교와 문학”, “기독교와 문학”, “성경과 문학” 등의 분야의 공통적인 기저를 연관시키는 이론으로 체계화 하려 한다. 위에서 문학과 신학 통합연구방법론이 하나의 교과과정으로까지 논의되었던 것은 그러한 이유에서다.

『기독교 학문』이라는 기독교계의 학문적 성과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기독교와 문학의 만남으로부터 『기독교 교양교육』이라는 과정을 언급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문학과 신학 통합연구』는 기독교 교양에서 출발하여 기독교 학문에 이르기 위한 한 도정이요 진지한 사유의 훈련장이고자 한다. 앞에서 논의된 『문학과 신학 통합연구』가 하나의 연구방법론으로 자리잡고, 문학과 신학이 만나는 현장, 곧 인간의 존재의 현장에서 솔직한 대화를 유도하게 된다면 ‘하나님 나라’에 부응하는 학문과 문화를 건설하는데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소망해 본다. 『문학과 신학 통합연구』는 학문의 엄정한 논리로 정화된 신앙고백이 되려고 하기 때문이다.

## 참고문헌

- 가브리엘 바하니안, 『신의 죽음과 현대문학』, 변선환, 고진하 역(1984) (서울: 현대사상사)
- 가진오(1995), 『한국 기독교문학사론』 (서울: 성서신학서원)
- 김지찬(1995), 『언어의 직공이 되라』 (서울: 말씀사)
- 김현, 김주연 편(1995), 『문학이란 무엇인가』 (서울: 문학과 지성사 25판)
- 김희보(1979), 『한국문학과 기독교』 (서울: 현대사상사)
- 문학개론편찬위원회(1986), 『문학개론』 (서울:새문사)
- 소재영 외(1993), 『기독교와 한국문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 조남기(1991), 『기독교문학산책』,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 조신권(1987), 『영문학 속에 나타난 성서의 향기』 (서울: 풍만출판사)
- 추태화(1994a), “국가사회주의하의 기독교문학. 그 위상에 대한 한 고찰”, 『독일문학』 35(3)
- 추태화(1994b), 『Nationalsozialismus und Verantwortung der Christlichen Literatur』, Peter Lang: Fft/M.
- A.A.Hodge, Outlines of Theology 고영민 역(1995), <하지 조직신학>, 서울: 기독교문사
- A.Avni(1970), *The Influence of the Bible on American Literature: A Review of Research from 1955 to 1965. Bulletin of Bibliography* 27 (October-December)
- A.Becker(1966), *Mensch, Gesellschaft, Kirche bei H.Böll*, hrsg.v.Beckel (Osnabrück)
- A.Luther(1968), *Jesus und Judas in der Dichtung. Ein Beitrag zur vergleichenden Literaturgeschichte* (Hanau)
- A.Winklhofer(1960), *Theologische Aspekte zur christlichen Literatur*, in: K.Forster(hrsg.), *Was ist das Christliche in der christlichen Literatur?* (München)
- B.B.Trawick(1970), *The Bible as Literature: The Old Testament and the Apocrypha* (NY, Cambridge).
- Ch.R.Courtney(1955), *The Religious Philosophy of C.S.Lewis* (MA-Thesis, Univ. of Arizona)
- C.Kilby(1978), *Images of Salvation in the Fiction of C.S.Lewis* (Wheaton)
- C.S.루이스, 『순전한 기독교』, 엄성욱 역, 은성
- D.Daiches(1984), *God and the Poets* (Oxford)
- D.H.Hesla(1978), *Religion and Literature: The Second Stage*, in: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Religion* 46.
- E.Diller(1967), *F.Dürrenmatt's Theological Concept of History*, in: *German Quarterly* 40
- E.Jennings, *Christian Poetry* 김영호 역(1992), 『영미기독교시 개관』 (서울: 숭실대 출판부)
- F.Eversole(1949), *Christian Faith and the Contemporary Arts* (NY, London)
- F.Schaeffer,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김기찬 역(1995), 『프란시스 웨퍼 전집 V, 『기독교 사회관』 (서울: 생명의 말씀사)
- G.E.Veith(1951), *Reading between the Lines. A Christian Guide to Literature* (Wheaton)

- G.Gunn(1971), *Literature and Religion* (NY).
- H-E.Bahr"(1961), *Theologische Untersuchung der Kunst: Poiesis* (Stuttgart)
- H.Friedmann u. O.Mann (hrsg)(1968), *Christliche Dichter im 20. Jahrhundert. Beiträge zur europäischen Literatur* (Bern, München)
- H.Gardner(1983), *Religion and Literature* (Oxford).
- H.Harmsel(1973), *Tragedy and the Christian Faith*, in: *Christianity and Literature* 22
- H.Jones(1891), *R.Browning as a Philosophical and Religious Teacher* (NY)
- H.Schröer(1983), *Einführung in das Studium der evangelischen Theologie* 『신학이란 무엇인가』, 정일웅 역(서울: 기독교지혜사)
- H.Thielicke(1981), *Mensch-sein Mensch-werden: Entwurf einer christlichen Anthropologie*, (München, Zürich)
- J.BGabel and Ch.B.Wheeler(1990), *The Bible as Literature: An Introduction* (NY, Oxford).
- J.Strelka(1978), *Methodologie der Literaturwissenschaft* (Tübingen)
- K.H.Bloching(1966), *Die Autoren des literarischen Renouveau catholique Frankreichs* (Bonn)
- K.Hohoff, 『기독교 문학이란 무엇인가』, 두란노서원
- K-J.Kuschel(1987), *Jesus in der deutschsprachigen Gegenwartsliteratur* (Tübingen)
- Louis Berkhof, 『기독교신학개론』, 신윤복 역, 성광문화사
- L.Ryken(1979), *Triumphs of the Imagination - Literature in Christian Perspective* (Downers Grove)
- L.Ryken(1985), *Windows to the World. Literature in Christian Perspective* (Grand Rapids)
- M.J.Fiecke(1944), *The Revival of Catholic Literature in Twentieth Century Germany* (Diss. Milwaukee)
- N.Frye, *Bible and Literature*(1993) 『성서와 문학』, 김영철 역 (서울: 송실대출판부)
- P.Tillich, *Systematische Theologie*, 3 Bde. Berlin (Bd.1: Das neue Sein, Bd.2: Die Zweideutigkeit des Lebens, Bd.3: Der Sinn der Geschichte, hg.v. M.Baumotte.
- R.Brett(1953), *The Function of Literary Imagery in Christian Understanding*, in: *Christian Scholar* 36
- R.D.Reck, *Literature and Responsibility: The French Novelist in the Twentieth Century* (Louisiana State Univ. Press)
- R.Guardini(1962), *Welt und Person. Versuche zur christlichen Lehre vom Menschen* (Würzburg)
- R.Lundin, S.Gallergher, 『신앙의 눈으로 본 문학』, 김승수 역, IVP
- R.P.Crimman(1978), *Literaturtheologie. Studium zum Vermittlungsproblem zwischen Germanistik und Theologie, Dichtung und Glaube, Literaturkritik und Religionspädagogik* (Fft/M)
- R.Stewart(1958), *American Literature and Christian Doctrine* (Baton Rouge)
- S.Bein(1973), *Vernunftsglaube und Weisheitsglaube im Werk von M.Hausmann*, in: *Welt und Wort* Nr.28
- Tea-Wha Chu(1994), *Nationalsozialismus und Verantwortung der christlichen Literatur. Zur Poetologie des Zwischen-den-Zeilen-Schreibens der christlichen Dichter in der Inneren Emigration 1933-1945* (Fft/M)
- Th.Ziolkowski(1972), *Fictional Transfigurations of Jesus* (Princeton)
- T.Longmann(1987) III, *Literary Approaches to Biblical Interpretation* (Grand Rapids)
- T.S.Eliot(1936), *Religion and Literature*, in: *Essays Ancient Literature* (London). R.Schneider, *Der Bildungsauftrag des christlichen Dichters*, Zürich.
- U.Baltz(1981), *Theologie und Poesis. Annäherung an einen komplexen Problemzusammenhang zwischen Theologie und Literaturwissenschaft* (Bamberg)
- W.Jens, H.Küng und K-J.Kuschel(1986), *Theologie und Literatur. Zum Stand des Dialogs*, hrsg.v. (München)